

방재 생활화에 새로운 이정표 설정

존경하는李大鎔이사장님, 그리고 화보험회 임직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방재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신 화협인들의 노고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선 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로 기억되고 있는 1971년 12월, 우리나라 화재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던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를 비롯해서 72년 '서울과레스호텔' 화재, '대왕코너' 화재, '시민회관' 화재등 빈번한 대형화재사고의 발생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전국민에게 확산되자 정부는 1973년 2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설립된 귀 협회는 이후, 200여명의 고도로 숙련된 점검요원을 양성, 전국 7대 도시의 특수건물 및 각종 방재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사회적 공익성을 국민들 가슴 속 깊이 심어 줌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확산,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이룩해 왔음은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주변환경은 날로 복잡해지는 산업구조와 과학문명의 발달로 위험의 거대화, 다기화, 심적화 현상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방재업무 또한 과학화, 전문화,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문을 열게된 '방재시험소'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수렴하여 전국민의 방재의 생활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본인은 우리 손보산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방재시험소'의 진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업계는 계속되는 수지악화로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발생된 적자 누증 현상은 이제 1,000억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금의 압박은 그 한계선 상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외형성장만을 주시해 오고 있던 외국보험회사(특히 미국)들의 국내 진출의도가 표면화 되면서 손보시장의 추가개방이라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외외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손보산업이 또다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굳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위주의 안정성장과 자율경쟁 체제확립을 위한 Underwriting 기술의 향상, 그리고 요율의 합리적 조성과 위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손해를 경감을 위한 위험관리제도의 확산 보급이야말로 앞으로 '방재시험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종전에 실시해 오던 화재예방사업은 물론, 나아가 손해보험 각 분야별로 방재업무의 영역을 넓혀 나가 작제는 손보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다지는 초석으로, 크게는 국가방재대책에도 기여함으로써 연간 약 1조 2천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새 난없는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십분 발휘, 명실공히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방재센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간 수고해오신 관계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봄의 길목에 우뚝 솟아 오른 '방재시험소'의 위용에 우리 모두가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趙 洪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